



대구달성도서관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수여

대구달성도서관(관장 정현호)은 지난달 30일(월) 2024년 ‘책 읽는 가족’ 두 가족을 선정해 인증서와 시상품을 전달했다.

‘책 읽는 가족’은 (사)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 독서 캠페인으로, 가족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선정 가족은 2023년 한 해 동안 도서관 자료를 모범적으로 이용한 가족으로, 자료 대출량, 자료대출횟수, 이용성실도 등을 평가해 상위 2가족을 선정했다.

‘책 읽는 가족’에게는 1년간 자료 대출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대출권수는 1인당 10권에서 20권으로 늘어나는 혜택이 제공된다.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된 가족들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현호 관장은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두 가족에게 앞으로도 가족 독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도서관도 가족 독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달성도서관>

엄마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 있나요?



생애 가장 특별한 여행이 찾아옵니다



푸른방송 디지털 케이블 123, 케이블 57-1



대구달성교육지원청 학생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대구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현)은 11월 22일(금)까지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88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실천·체험 중심의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급별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바른 진로 인식 함양을 위한 자기이해 및 관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긍정적 인식을 기르는 생각관리 및 마음관리,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 등을 다룬다.

<자료제공:대구달성교육지원청>



대구교육박물관 ‘9월 주말가족체험교실’

대구교육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토), 29일(일) 양일간 총 4회에 걸쳐 ‘9월 문화 체험형 주말가족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총 27가족 9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 및 거북선 제작 과정’을 주제로, 수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역사와 수학을 융합하는 창의융합적 사고력과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도록 구성했다. <자료제공:대구교육박물관>